

6월 2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2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저축률 증가로 소비침체 우려..다우 0.4%↓	<p>뉴욕 증시가 개인소비 지표 등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저축률 상승과 기업 실적 저조가 겹치며 하락세로 마감했음. 다만 나스닥지수는 휴대폰 제조업체 팜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음.</p> <p>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34.01포인트(-0.40%) 하락한 8,438.39를, S&P500 지수는 1.36포인트(-0.15%) 내린 918.90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8.68포인트(0.47%) 오른 1,838.22에 거래를 마감했음.</p>
엇갈리는 지표, 호재보다는 악재에 반응	<p>미국 상무부는 개인소득이 1.4%나 급증, 1년만에 최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증가율 0.3%를 크게 웃돈 수치임.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소득 증진으로 나타난 것까지는 성공적이었으나 기대했던 내수 진작은 미미했음. 소비 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소비자들은 늘어난 소득을 소비하기 보다는 저축하는 길을 택했음. 5월 가계 저축률은 6.9%를 기록, 전월 보다 1.3%포인트 증가했고 이는 1993년 12월 이후 1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임. 반면 지난달 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3% 증가해 2월 이후 석달만에 증가세가 나타나긴 했으나 저축률 증가치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인식되었음. 즉 가계 저축률 증가로 인해 개인소득·소비의 동반 증가에 따른 소비향상에 대한 기대가 반감된 것으로 보임.</p>
경기 회복 지연 우려...유가 하락	<p>국제 유가는 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가 고조되며 하루만에 70달러선 아래로 하락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8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07달러(1.5%) 내린 69.16달러에 거래를 마쳤음. MF 글로벌의 존 길더프 부회장은 "경제는 소비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저축률의 상승은 당분간 수요가 부진할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고, 리터부시 앤 어소시에이즈의 짐 리터부시 회장은 "펀더멘탈상 유가가 70달러선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68달러선에서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음.</p>
日정부, 우주 태양광 개발한다	<p>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우주궤도 태양전력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주기반의 태양광 전력 시스템은 날씨와 상관없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선정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태양광 전력을 마이크로파로 전환한 뒤 다시 지표면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됨. 이를 위해 10미터(m) 근방의 거리에서 마이크로파 전환을 시도한 후 3~5년안에 100m까지 확장한다는 계획. 또 관련 실험을 위해 정부는 2015년 중 소형 인공위성을 띄울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p>

제목	주요 내용
중국 "美 달러 대체할 기축통화 또 주장"	중국 인민은행은 26일(현지시간) "외환보유고로 사용할 기축통화의 태생적인 부족을 막기 위해 (개별) 국가들과 관련이 없는 국제 기축통화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자는 주장. 인민은행은 특히 이날 발표한 `2008년 연례 금융안정리뷰` 보고서에서 "IMF의 특별인출권(SDR)이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IMF는 회원국의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관리해야만 한다"고 언급, 새로운 기축통화로 IMF의 SDR를 지목했음.
내주 회사채 발행 44건 1조436억..3주 연속 1조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월 첫째주 회사채 발행계획 집계 결과 금호종합금융이 대표 주관하고 KB투자증권이 공동주관하는 STX엔진(077970)(28,200원 0 0%) 5회차 1,700억원을 비롯, 모두 44건에 1조 436억원 규모의 회사채가 발행됨. 이는 이번주 발행계획으로 잡혔던 40건 1조6,044억원에 비해 발행건수는 4건이 증가한 것이나 금액으로는 5,608억원이 감소한 수치. 채권 종류별로는 ABS(자산유동화증권)가 33건에 5,816억원으로 제일 많고 무보증 일반 회사채가 6건에 3,700억원 주식관련사채가 4건에 620억원 금융채가 1건에 300억원 등임.
금호아시아나, 결국 "대우건설 되팔겠다" 발표	새로운 재무적 투자자(FI)를 유치해 연말에 돌아올 대우건설(047040)(12,850원 0 0%) 풋백옵션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지만, FI와 조건이 맞지 않아 결국 매각으로 입장을 정리.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대우건설 풋백옵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주채권은행과 협의해 매각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공개매각 또는 산업은행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주채권은행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호는 매각 규모를 FI 지분 39%+ 경영권, 50%+1주, FI 지분 39%+ 그룹 지분 33% 등 세 가지 정도로 고려하고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